



# 금속인전통신

# 2호

●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 두대선 ● 발행일 : 2022년 1월 24일(월) ● 홈페이지 : <http://ic.kmwu.kr/>

## 3월 7일 금속노조 정기대대,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수립 조합대의원 지부·지회대의원 선거진행

금속노조는 오는 3월 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업평가, 사업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번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노조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 사업장에서 1월 25일~27일까지 1차 대의원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2차투표는 2월 9일~10일 치러진다. 노조는 2022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임원 현장순회와 현장토론을 진행하고 2월 22일 중앙집행

위원회, 2월 23일 중앙위원회를 거치는 등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인천지부도 이에 따라 조합대의원, 지부·지회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대의원은 일반대의원 25명, 여성할당 3명, 비정규할당 1명 등 29명을 선출한다. 지부운영위원회에서는 노조 정기대의원대회가 끝난 뒤 3월 17일 지부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12기 1년차 조합 대의원 입후보자 현황

1월 25일(화) ~ 27일(목) : 1차 투표  
2월 9일(수) ~ 10일(목) : 2차 투표

▶아래 입후보자는 현대제철 지회를 제외한 입후보자입니다. 1~7선거구는 여러 지회가 한 선거구를 이루어 1명의 조합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선거구	지회명	입후보자 이름	선출인원
1	부평공단	이재영 (부평공단지회)	1
	한국펠저		
2	핸즈코퍼레이션	박광일 (핸즈코퍼레이션지회)	1
	HL클레무브		
3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최병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1
	창성		
4	KM&I	박광연 (KM&I지회)	1
	개별조합원		
5	하인스	정희섭 (삼성전자서비스인천)	1
	삼성전자서비스인천 현대모비스부품사업소		
6	한국ITW	박영희 (한국ITW지회)	1
	캐스코드		
7	대우자동차판매	오제원 (SH-CP지회)	1
	대한솔루션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 SH-CP		
8	유신정밀공업	김종구	1
9~11	현대SC	2차 일정에 진행	3
12~17	현대제철	강대영, 배영민, 이은선 심해인, 공필상, 이재혁	6
18~25	GMTCK	2차 일정에 진행	8
여성 할당	GMTCK	2차 일정에 진행	1
	나머지 인천지부	윤화심 (개별조합원) 이지현 (부평공단지회)	2
비정규 할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	이영수	1
	합계		29명



1선거구  
이재영(부평공단)



2선거구  
박광일(핸즈코퍼레이션)



3선거구  
최병연(현대두산인프라코어)



4선거구  
박광연(KM&I)



5선거구  
정희섭(삼성전자서비스)



6선거구  
박영희(한국ITW)



7선거구  
오제원(SH-CP)



8선거구  
김종구(유신정밀공업)



비정규할당  
이영수(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



여성할당1  
윤화심(개별조합원)



여성할당2  
이지현(부평공단)

# 한국지엠지부, GMTCK지회 차별지급에 맞서 중식선전전, 본관 앞 집회 “10년 체불임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라”

한국지엠지부, GMTCK지회가 사측의 통상임금 차별지급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섰다. 작년 6월 대법원은 사무직 통상임금 체불소송에서 14년 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무직의 임금항목 중 업적연봉, 조직(조사)수당, 가족수당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무직에게 일방적인 임금체계를 강요한 것에 맞서 기나긴 투쟁을 해 온 결과였다. 그런데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은 소송 참여분만을 지급하고, 경영진과 팀리더를 포함한 미소송자에게는 전 기간인 10년+6%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1월 19일 한국지엠지부, GMTCK지회 \_통상임금 차별지급 철폐 집회(한국지엠 본관 앞)

한국지엠지부와 GMTCK지회는 통상 임금 차별지급과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10년 체불임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라”며 새해 첫주부터 중식선전전을 전개하고, 19일에는 본관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매월 '공단 미조직노동자 선전의 날' 진행

1월 20일 부평, 1월 24일 남동, 1월 26일 하인천 검단 동암, 2월 18일 주안서구

금속노조 인천지부 각 지회는 매월 공단 미조직노동자들의 권리를 알려내고 조직하기 위해 <바지락>을 배포한다. 바지락은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면 세상이 즐거워져요”라는 뜻

의 금속노조 선전물이다. 이 달은 1~2월 통합호로 발행됐으며, 1월 20일에는 부평권역 부평공단, 지엠비정규직, GMTCK, SH-CP 지회 간부가 갈산역에서 퇴근선전전을 진행

했고, 1월 24일에는 남동권역 대한솔루션, 유신정밀공업, 창성, 한국ITW 지회 간부가 동춘역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선전전은 인천지역을 총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권역	일시 및 장소
부평	1월 20일(목) 17시 갈산역
주안서구	2월 18일(금) 17시 IBC센터
남동	1월 24일(월) 07:30 30분/동춘역
하인천	1월 26일(수) 17시 동인천역
검단	1월 26일(수) 07시 검단오류역
동암	1월 26일(수) 19시 30분 동암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대시민 선전전

## 5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중대재해 신고와 제보 참여 요구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지부 각 지회는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시민 선전전에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십수 년 동안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들이 온 힘을 다해 투쟁하며 요구해 온 법이다. 자본은 노동자의 건강보다 돈벌이에 급급해하며,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해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을 전쟁터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10만 입법 청원 등을 벌여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적용 제외, 5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비판을 받았다.

작년 1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민주노총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작년 12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벌여왔다. <사업단>은 지역 시민에게 신고와 제보에 참여

### 금속노조 인천지부-인천의료원 건강증진 협약

1월 20일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의료원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건강증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인천지부 조합원 및 인천지부가 의뢰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20% 할인과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시 협약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 민주노총 제74차 정기대의원대회

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오후2시  
 장소 : 추후 공지  
 안건

1. 2021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
2.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3. 규약 개정 건
4. 결의문 채택 건
5. 기타